

한·중 한자어 접두사 특성에 대한 고찰

鄒愛芳*

<목 차>

1. 들어가기
2. 기존 연구의 쟁점 및 문제점
3. 접두사의 설정
 - 3.1 설정 기준
 - 3.2 목록 제시
4. 한·중 한자어 접두사의 특성
 - 4.1 형태적 측면
 - 4.1.1 어기의 구성
 - 4.1.2 어기의 문법적 범주
 - 4.2 의미적 측면
5. 나오기

1. 들어가기

한국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 받아온 사이인 만큼 문화적인 교류 또한 빈번하고 활발했다. 문화적인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로 두 나라가 다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순수한 고유의 한국어 속에 침투되어 있는 한자어는 고대로부터 이미 중국과의 문화 접촉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언어에도 미친 결과이며 현재 한국어 어휘의 절반 이상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고 형태적 유형론에 따르면 한국어는 교착어, 중국

* 高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博士課程.

어는 고립어에 속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단어는 그 내부 구조의 종류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그 구성 성분이 어기로부터 이루어졌으면 합성어로, 어기와 접사로 이루어졌으면 파생어로 정의한다. 한자어도 마찬가지로 합성한자어와 파생한자어로 나눌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합성 한자어가 아닌 파생 한자어, 주로 접두 파생어로 한정한다. 어떤 한자어가 파생어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 한자어에 접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한자어 접두사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중국어의 한자어 접두사, 특히 구체적인 접두사의 예를 분석하고, 두 언어의 접두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의미적인 특성을 밝혀 접두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한국어 한자어의 특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하고 그 특성들에 비추어 본 중국어 접두사의 특성, 그리고 한·중 두 언어에서 상대적으로 달리 부각되는 유형적 특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 기존 연구의 쟁점 및 문제점

접두사를 논의하기에 앞서 통일된 명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중국어에서 접두사에 대한 명칭은 前綴, 詞頭, 接頭辭, 接頭字, 前加成分, 前附號 등이 있다.¹⁾ 한국어와의 용어상의 일치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동일하게 접두사라 칭하고자 한다.

한·중 두 언어의 접두사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

1) 馬慶株(1998: 155) <現代漢語詞綴的性質、範圍和分類>에서는 현대 중국어 접사의 명칭에 대해 정리하였다.

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나는 두 언어의 접두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어 접두사의 분류 문제이다.

우선 한국어 한자어의 접두사의 연구 현황을 알아보자. 한국어의 경우 주로 접두사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즉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논의 역시 ‘한자어 접두사라는 범주가 존재하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는 견해에 따라 크게 한자어 접두사의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²⁾, 중간 범주인 준접두사를 인정하여 설정하는 관점³⁾, 한자어 접두사를 설정하고 있는 관점⁴⁾으로 나뉜다. 그 중에 세 번째 관점 즉 접두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연구는 접두사 설정에 관한 논의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초기 별다른 접두사 설정 기준이 없이 목록만 제시된 논의(최현배 1955, 이익섭 1968)에서부터 고유어 접두사 기준을 한자어 접두사에 적용한 논의(성환갑 1972, 서정미 1994), 그리고 한자어 체계 내에서 한자어 접두사를 설정한 논의(노명희 1998, 김창섭 1999, 김인균 2002)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에 따라 진행해 온 연구가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한자어 접두사의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 논의가 주로 한자어의 수가 많고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를 들면 ‘木活字, 銅活字, 陶活字, 遠距離, 近距離, 長距離’등 한자어에서 ‘木活字’의 ‘木’을 접두사로 본다면 ‘銅活字, 陶活字’등의 ‘銅, 陶’도 모두 접두사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적용 방식에 따라 한자어 접두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접두 한자어를 접두사 범주로 볼 수 없는 다른 근거로 어기의 범주를 바꾸는 접두 한자어를 들기도

2) 고유어와 달리 접두사의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의는 서병국(1975), 김규선(1970), 정민영(1994) 등에서 제시되었다. 이들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한자어 접두사 설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선행하는 한자어를 접두사로 볼 경우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고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3) 대표적인 논의는 김규철(1980, 1997)을 들 수 있다. 김규철(1980, 1997)에서는 한자어가 아직도 한문 문법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한자어의 경우 접사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완전한 접사와 자립형식의 중간 단계인 준-접두사(prefixoid)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김규철(1980: 83)에서 부정접두사가 고유어 접두사와는 달리 뜻을 더함과 동시에 통사적 자질을 변화시키므로 이를 준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다.

4) 이익섭(1968), 성환갑(1972), 노명희(1990)는 한국어 한자어에도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접두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다. 여기⁵⁾에 선행하는 접두 한자어 중 부정의 의미를 지닌 ‘無, 不, 非’ 등의 경우는 어기의 어조를 고르거나 의미 강조 혹은 첨가하는 고유어 접두사와는 달리 어기의 형태-통사적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⁶⁾을 문제로 삼아 한자어 접두사의 범주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접두사를 접두사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위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접두사의 목록이 너무 많아진다는 점과 부정의 접두어가 보이는 고유어 접두사와의 차이, 그 외에 어근 분리 현상⁷⁾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자어 접두사가 고유어 접두사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되 고유어화 과정을 거치면서 접두사로 설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한자어 접두사의 범주를 인정하느냐 않느냐가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다양성과 복잡함이 안겨주는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한자어 접두어의 특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한자어의 접두사, 특히 접두사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고 명료하게 알고자 하는 생각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까지 한자어에 대하여 다루어져 온 다양하고도 복잡한 논의에서 벗어나 한국어에 한자어 접두사가 존재한다는 관점을 인정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에 반하여 중국어에 있어서 접두사 설정여부는 논의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는 중국어 접두사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접두사의 존재유무와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어 접두사에 관한 연구는 접두사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중국어에서 접두사에 대한 논의가 연구의 초기에는 접두사의 개념 및 성격 규정에 관한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어 왔다. 그 중에서 朱德熙

5) 이익섭(1975)에서 ‘어기’는 단어에서 접사를 제외한 단어의 핵심부이며 어간과 어근을 묶는 접사의 대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어간’은 굴절접사가 연결될 수 있는 형태소나 단어 및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식 전부, ‘어근’은 굴절접사와 결합될 수 없고 자립형식도 아닌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이 어기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6) ㄱ. 발로 볼을 찼다. ㄴ. 맨발로 볼을 찼다. ㄷ. * 價値하다. ㄹ. 無價値하다

7) ㄱ. 完全하다 - 不完全하다 / *不完全을 하다, ㄴ. 意味하다 - 無意味하다 / *無意味를 하다, ㄷ. 記錄하다 - *好記錄하다 / 好記錄을 내다

(1982), 呂叔湘(1982), 馬慶株(1998)를 대표로 뽑을 수 있다. 朱德熙는 단어의 구조, 주로 단어의 구성 방식, 呂叔湘은 형태소의 분류에서 출발하고 접두사의 개념을 규정했다면 馬慶株는 일반언어학의 시각에서 다른 언어와의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중국어 접두사의 성격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접두사성을 띠는 新興 접두사들이 중국어 고유의 특성과 여타 언어의 이론들을 융합하여 대량으로 등장했다.⁸⁾ 결국 확실한 지위를 얻게 되며 준접두사⁹⁾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 특히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학자들이 준접두사가 가진 현대 중국어에서의 발전 현황과 복잡한 양상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게 되면서 준접두사의 존재 합리성이 받아들여졌다. 준접두사가 대량으로 등장하는 것은 현재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언어 현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존의 한·중 접두사 연구에서 접두사 분류상의 문제로 인해 접두사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불필요한 혼란스러움을 주는 문제를 바로잡고, 접두사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중국어 접두사의 분류 문제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어의 경우, 중국어 접두사는 지금 두 가지 종류가 병존하고 있다. 하나는 고유 접두사이고 또 하나는 준접두사이다. 기존 연구¹⁰⁾에서는 이 두 접두사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접두사를 하나로 묶어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두 언어의 접두사적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8) 이런 준접두사는 주로 중국어 자체의 특수성, 언어 간 교류의 영향, 파생법으로 인한 어휘의 높은 생산성 등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9) 준접두사에 관한 용어가 呂叔湘(1979: 48) 《漢語語法分析問題》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제시하였다.

10)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한자어 접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림(2006), 유적(2008), 신평(2009), 방향옥(2010), 주교량(2011)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 접두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유적(2008)과 주교량(2011)이다. 유적(2008)에서는 정확한 접두사 설정 작업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접두사의 본질을 밝히는 데 문제가 따른다. 한편 주교량(2011)에서는 설정 기준에 따라 접두사의 목록을 제시하며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 접두사와 준접두사를 따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달리 용어상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비교하는 과정에서 접두사와 준접두사는 따로 비교 분석하지 않고 앞에서 따로 설정된 접두사와 준접두사의 목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남게 돼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여기서 한국어의 준접두사와 중국어의 준접두사에 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어에서의 한자어들이 한문 문법의 성질을 유지하는 것 즉 어근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중 일부 한자어의 경우 접사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완전한 접사와 자립형식의 중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준접두사라는 중간 범주를 제기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접두하는 한자어를 준-접두사로 설정한 논의에서는 접두한자어를 비록 고유어처럼 완전한 접두사는 아니지만 접두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준접두사라는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기에 접두하는 한자어를 접두사로 본다기보다 어근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준접두사와 어기의 결합을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에 있는 이런 준접두사들은 사실 본고의 고찰대상에서 제외한 것들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의 준접두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미루어 보면 중국어 접두사 연구의 범위 안에 처해 있고 늘 고유 접두사와 함께 논의해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제 중국어 접두사하면 준접두사를 빼놓고 논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에서 완전한 한자어 접두사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찰로부터 특성 연구를 시작하여 거기서 비추어 본 중국어 접두사(고유접두사와 준접두사 다 포함)의 특성, 그리고 한중 두 언어에 달리 나타나는 접두사의 특성을 중점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처럼 두 언어가 접두사에 관한 논의의 시각 차이는 한국어 한자어가 차용적 특성을 지녀 한국어 고유어에 동화됨과 동시에 한자어 고유의 특성을 지니는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어 접두사에 관한 논의는 한국어 고유어와의 비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중국어 접두사에 관한 논의는 중국어에 있는 두 종류의 접두사가 가진 특징이 분명하고 수량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 둘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 중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특성들이 각자 두 언어 내부에서 즉 한국어 한자어는 고유어와 비교하고 중국어에서 고유 접두사는 준접두사와 비교해서 두드러진 특징들이지 두 언어

가 서로 비교해서 드러난 특성들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한 중 두 언어 내부에서 나타난 특성보다 두 언어를 서로 대조함으로써 부각되는 유형적인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3. 접두사의 설정

3.1 설정 기준

그동안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를 판별하는 기준은 연구자마다 서로 상이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자 접두 파생어가 접두사로서의 명확한 기능과 양상을 보인다고보다는 관형사, 어근과 접두사 등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으나 한자어 접두사 설정 기준의 일치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혹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기존 연구에서 각 논의별로 제시한 한자어 접두사 설정 기준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1>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

연구자	한자어 접두사 설정 기준
성환갑(1972)	단음절성, 의미 유연성 상실, 생산성
서정미(1994)	단음절성, 비자립성, 의미 변화성, 접두사와 결합하는 단어의 자립성
홍경란(1996)	1음절성, 의존성, 자립성 어기와 결합, 자립성 없는 어기와 결합할 경우 주종의 관계가 뚜렷하면 접두사로 인정
노명희(1998)	㉠ 관형사와 비관형사의 구분 기준: 형태적 분리성, 분포상의 제약, 수식 범위 한정, 대치 불가능성 ㉡ 접두사와 어근의 구분 기준: 의미 유연성, 생산성, 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 대응고유어의 접사성, 어기의 범주 변화

김창섭(1999)	㉠ 관형사와 비관형사의 구분 기준: 어떤 접두사적 요소가 구 구성을 수식하면 관형사로 인식함. ㉡ 접두사와 어근의 구분 기준: 고유어와 다수 결합하면 접두사, 한자어와만 결합하면 어근으로 봄.
김인균(2002)	단음절성, 2음절 이상의 자립적 어기를 앞에서 수식하는 비자립 형태, 한자어 이외에 고유어·외래어에도 붙는 높은 생산성, 의미 굴절·변화·확장으로 인한 그 의미와 기능의 단일화(의미·기능의 독립성 확보)
안소진(2004)	수식 범위, 고유어와의 결합 가능성, 의미 유연성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한자어 접두사 설정 기준에서 단음절성, 의미의 유연성 상실, 생산성, 의존성 등이 비교적 보편성을 띤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기존의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기준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자어 접사의 특성, 즉 접두사라는 성격과 한자어라는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서 네 가지 기준 즉, 첫째, 수식 범위. 둘째, 의존성. 셋째, 고유어,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 넷째, 의미의 유연성 상실 등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식 범위는 접두사 같은 경우 단어 단위를 수식한다. 이에 반해 관형사는 통사 단위를 수식한다. 예를 들면 現 [장관과 차관], 本 [연구와 발표]에서의 ‘現, 本’은 뒤의 ‘장관과 차관’, ‘연구와 발표’라는 단위를 수식하므로 관형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生고기]와 우유, [洋배추]와 샐러드 같은 예에서 ‘生, 洋’은 각각 ‘고기’와 ‘배추’라는 단어만 수식하므로 관형사가 아닌 접두사로 인정한다.

다음에 어떤 어근형태소가 접두사로 발전하게 되면 더 이상 독립적인 단위로 쓰이지 못하고 독립성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접두사는 의존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인 고유어,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국어의 어휘체계가 순수한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 과도 관련이 있지만 무엇보다 한자어 접두사의 고유어화 정도를 판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¹¹⁾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기준

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자어 접두사가 고유어와 외래어와의 결합 기준에서 바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자어 접두사가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함으로써 단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접두사로서의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의미의 유연성 상실이라는 기준은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에서 의미의 유연성 상실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의미의 유연성은 다소 모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유연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두사를 판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접두사로 의심되는 어떤 형태가 원 단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중요시하'(송철의, 2001: 45)기에 한자어 접두사의 여러 의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원래의 의미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접두사로 간주한다.

중국어에서의 접두사 설정 기준도 한국어 한자어의 설정 기준과 비슷하게 논자에 따라 달리 제시되고 있다.

<표 2> 중국어 고유 접두사 설정기준

연구자 \ 기준	문법적 기능				의미적 기능
	위치의 고정성 (定位性)	부착성 (粘着性)	품사 표시	다산성 (多産性)	의미의 虛化
趙元任(1979)	+	+	+	-	+
呂叔湘(1979)	+	+	-	-	+
朱德熙(1982)	+	+	-	-	+
王 力(1954)	+	+	+	-	+
郭良夫(1983)	+	+	-	-	+
馬慶株(1998)	+	+	+	-	+
劉叔新(2002)	+	+	+	-	-
楊錫彭(2003)	+	+	+	-	+

- 11)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한자어끼리 결합하여 단어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접두 한자어가 고유어와 일반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한자어가 그만큼 한국어 단어의 형성에 제약을 덜 갖는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접두 한자어가 어느 정도 고유어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안소진, 2004: 18).

기존 논의에서 중국어 고유 접두사 설정 기준으로 ‘위치의 고정성’, ‘부착성’, ‘의미의 虛化’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성을 보인다. 특히 ‘위치의 고정성’과 ‘부착성’은 모두 인정하는 기준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접사와 어근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접두사의 ‘품사 표시’, ‘의미의 虛化’ 등의 설정 기준은 논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 설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같이 중국어에서도 고유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기존 연구의 설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중국어 접두사의 특성도 같이 고려해서 첫째, 위치의 고정성, 둘째, 부착성(粘着性), 셋째, 품사 표시, 넷째, 의미의 虛化 등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치의 고정성에 있어 중국어의 한자는 의미·기능에 따라 어근으로 될 수도 있고 접사로도 될 수 있기에 접두사로서의 위치는 반드시 어근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老李(이씨)’의 ‘老’는 늘 성씨의 앞에서 위치하므로 접두사이다. 반면에 ‘나이 많음’을 나타내는 ‘老年’이나 ‘老’에서 보 다시피 ‘老’는 앞과 뒤, 모두 붙을 수 있으므로 접두사로 인정할 수 없다. 부착성에 관한 문제는 접두사와 어기 사이의 다른 성분 개입 여부로 부착성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阿姐(언니), 阿姨(이모)는 접사와 어기 사이에 다른 성분이 끼어들 수 없으므로 접두사로 처리한다. 그러나 ‘每天’, ‘每人’, ‘每月’는 ‘一’이나 ‘个’ 등이 개입되어 ‘每一 天’, ‘每一 个人’, ‘每一 个月’의 표현으로 쓰일 수 있어 접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품사 표시 기준은 고유 접두사를 통해 이 접두사가 들어가 있는 단어의 품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老(노)’는 중국어 고유 접두사의 전형적인 예로서 이 ‘老(노)’가 형성된 접두파생어가 전부 명사인 것을 볼 때 품사 표시 기능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품사 표시는 접두사 설정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품사 표시라는 기준은 늘 유형화 기능(類化作用)과 함께 언급해서 접두사와 어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¹²⁾ 삼는 관점을 받아들여 중국어 고유 접두사의 설정 기준에 넣기로 한다.

12) 宋開峰(2009) 참고.

마지막으로 ‘의미의 虛化’¹³⁾라는 기준은 엄밀하게 따지면 어근과의 비교에서 두드러지는 고유 접두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근은 단어를 구성하는데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 접두사 특히 고유 접두사는 어휘적 의미를 어근보다 훨씬 많이 상실하기에 의미가 더욱 추상적이고 의존적이다.

중국어에서는 고유 접두사뿐만 아니라 준접두사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고유 접두사의 설정 기준은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준접두사의 설정에 관한 주장은 거의 비슷하다. 본고에서는 위치의 고정성, 부착성(粘着性), 생산성, 의미의 부분적 허화(虛化)등을 설정하고자 한다. 고유 접두사의 설정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첫째, 둘째 기준은 같다. 세 번째 기준인 생산성에 대해 고유 접두사의 기존 연구에서 생산성을 설정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중국어 고유 접두사 설정 기준 중에서 생산성을 설정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은 고립어인 중국어의 특성,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어에서 파생어가 발달되지 않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새로 생긴 준접두사는 강한 생산성을 보인다. 이런 준접두사는 신조어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의 부분적 허화(虛化)라는 기준은 고유 접두사와 비교해볼 때 그 허화의 정도가 분명히 낮다. 중국어의 준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가 어느 정도 虛辭化되어 본래의 의미가 하나의 의미에서 여러 의미로 복잡하게 분화되며, 구체적으로부터 추상적으로 차츰 변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의미적 측면에서는 ‘의미의 허화’는 대체로 인정받고 있는 기준이다. 그러나 의미의 변화성은 어디까지 범위를 잡아야 하는지 논자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하게 접두사의 설정 기준으로 판정하는 데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점은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 설정기준인 의미의 유연성과 같은 문제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본고에서는 ‘의미의 허화’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표 3> 한·중 접두사의 설정 기준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	고유 접두사	준접두사
수식 범위 의존성 고유어,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 의미의 유연성 상실	위치의 고정성 부착성(粘着性) 폼사 표시 의미의 虛化	위치의 고정성 부착성(粘着性) 생산성 의미의 부분적 虛化

표를 바탕으로 하여 한·중 대조적인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어의 수식 범위라는 첫 번째 기준은 중국어 접두사와의 차별성을 명시하기 위해 제시하는데 한국어 접두사는 단어에만 한정하고 단어 이상의 단위를 수식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중국어의 준접두사는 구 구성과의 결합이 허용된다.¹⁴⁾ 한국어 설정기준에서의 의존성, 중국어에서의 부착성을 잘 따지면 비슷한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의존성과 부착성, 위치의 고정성은 서로 매우 긴밀하다. 어떤 형태소가 고정성, 부착성을 가지게 되면 이 형태소는 더 이상 독립적인 단위로 쓰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제시한 것은 한·중 두 언어의 용어 표현에 충실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는 고유어 및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은 중국어와 대조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 한자어의 교착어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중국어 고유 접두사의 폼사 표시 기준을 따로 제시한 이유는 중국어 고유 접두사가 수량이 극히 적으며 폼사 표시 기능을 갖는 점이 특징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어 고유 접두사 의미의 虛化라는 기준은 본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기보다는 주로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 그리고 중국어 준접두사와의 대조를 통해 부각되는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 고유 접두사의 경우는 원래 어휘적 의미를 어근보다 많이 상실하고 虛化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인데 준접두사는 어느 정도 본래 의미를 가지면서 그 의미가 점점 虛辭化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의 虛化라는 기준은 실은 의미 변화의 정도에 따른 차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14) 구체적인 논의가 4.1.2에서 진행될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중 두 언어의 접두사 설정 기준이 다르다. 이런 차이점은 각 언어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즉 한국어 한자어는 교착어의 특성과 고립어의 특성을 모두 가지므로 중국어 접두사와 같은 기준에서 설정할 수 없는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보이듯이 기준 설정은 어려운 작업이니만큼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보다는 대조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두 언어에서 상대 언어와 달리 나타나는 특성을 기준 설정에 더 잘 반영하도록 하였다.

3.2 목록 제시

지금까지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 개별 목록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설정된 한자어 접두사 목록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목록 제시 또한 설정 기준만큼 어렵다. 먼저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다.

<표 4> 기존 연구에서의 한국어 접두사 목록

연구자	한자어 접두사	수
최현배(1971)	御, 貴, 尊, 令, 總, 沒, 反, 無, 未, 非, 失, 不, 生, 凶, 沃, 博, 堂, 從, 親, 外, 虛, 實, 亞	23
이익섭(1968)	未, 不, 最, 洋	4
성환갑(1972)	過, 貴, 來, 內, 冷, 濃, 淡, 堂, 唐, 當, 大, 獨, 每, 名, 木, 沒, 半, 汎, 別, 復, 伏, 副, 非, 生, 聖, 媿, 失, 亞, 洋, 養, 擘, 連, 英, 王1, 王2, 外, 正, 僞, 義, 政, 尊, 從1, 從2, 準, 中, 初, 總, 最, 親, 弊, 被, 含, 抗, 該	54
김계곤(1968)	來, 堂, 非, 媿, 洋, 養, 御, 從, 最	9
송기중(1992)	非, 兼, 不	3
서정미(1994)	假, 各, 客, 乾, 輕, 空, 過, 急, 濃, 堂, 唐, 對, 都, 名, 木, 半, 副, 生, 聖, 媿, 實, 亞, 洋, 養, 延, 軟, 王1, 王2, 倭, 外, 從, 准, 清, 親, 含, 胡	36
노명희(1998)	生, 王, 洋, 媿, 外, 親, 超, 汎, 最, 準	10
김창섭(1999)	本, 生, 媿, 洋, 王, 外, 親	7
안소진(2004)	生, 王, 菁, 空, 乾, 洋, 媿, 外, 親, 養, 義	11

기존 연구에서 주로 접두사는 관형사와 어근과의 비교를 통해 목록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기존 연구에서 한국어 한자어의 접두사는 관형사나 복합 한자어의 구성원인 어근과의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이들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기준을 세워보고 그에 따른 목록을 제시하려는 논의가 주가 된다.

그 중에서 성환갑(1972), 서정미(1994), 노명희(1998), 김창섭(1999) 4개 연구와 《새우리말 큰사전》, 《금성판 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연세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 5개 사전에서 다루어진 접두사의 횟수 특히 7회 이상으로 나타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5> 한자어 접두사 횟수¹⁵⁾

7번	생(生),시(嫗), 양(洋),왕(王)1,친(親)2
8번	양(養),왕(王)2,외(外)1,준(準)
9번	농(濃),당(堂),당(唐),명(名),부(副),초(超),최(最)

본고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한자어 접두사 판정 기준 즉 1)수식 범위, 2)의존성, 3)고유어, 외래어와의 결합 가능성, 4)의미의 유연성 상실 등 4개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연구와 사전에서 제시한 접두 한자어의 횟수 정보도 같이 참고해서 한자어 접두사의 목록을 다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자어 접두사 유형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에 어근이나 관형사나 하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 모두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최종적으로 정리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6>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 목록

生: 생감, 생중계	王: 왕밤, 왕고집	嫗: 시어머니, 시누이
洋: 양배추, 양과자	親: 친부모, 친형제	外: 외삼촌, 외숙모

15) 안소진(2004: 13)참고.

중국어에서 파생어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어의 접두사 연구 현황 역시 한국어 접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마다 목록 설정을 달리 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기존 연구에서의 중국어 접두사 목록

연구자	접두사		수
	고유 접두사	준접두사	
王力(1954)	所爲打第阿老		6
朱德熙(1982)	第初老		3
陸志偉(1957)	第老		2
呂叔湘(1979)	阿第初老小	可好難准類半亞次超單多不無非反自前代	5 + 1 8
郭良夫(1983)	老小第初	多半單超非無不反親自次	4 + 1 1
趙元任(1979)	阿第初老	不單多泛准偽無非親反	4 + 1 0
馬慶株(1998)	阿老之以打見	分准總偽亞可不	6+7

이렇게 표에서 제시하듯이 접두사 인정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고 목록도 달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구자에 따라 고유 접두사가 2 개에서 6개 까지 수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 다음에 접두사만 제시하는 논의와 접두사와 준접두사(類前綴)를 동시에 제시하는 논의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한 이 접두사들을 접두사로 과연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現代漢語辭典’(2002), ‘新華新詞語辭典’(2003) 그리고 접두사 연구에 영향력이 있는 전문 저서의 목록¹⁶⁾을 바탕으로 하되 앞에서 제시한 접두사의 설정 기준에 따라 목록을 다시 제시해 본다.

16) 郭良夫(1983), 陳光磊(1994), 沈孟瓔(1995), 邵敬敏(2001) 등.

<표 8> 중국어 고유 접두사 및 준접두사 목록

典型前綴(고유 접두사)	類前綴 (준접두사)
阿: 阿姐(언니), 阿姨(이모) 老: 老板(사장), 老外(외국인) 第: 第一(제일), 第二(제이) 初 ¹⁷⁾ : 初一(음력 초하루), 初二(초 이튿날)	半: 半自動(반자동), 半文盲(반문맹) 超: 超現實(초현실), 超聲波(초음파) 大: 大農業(대농업), 大經濟(현대적 경제) 多: 多功能(다기능), 多晶體(다결정체) 非: 非暴力(비폭력), 非正式(비정식) 高: 高學歷(고학력), 高消費(고소비) 后: 后現代(후현대), 后冷戰(냉전종결 후 대결국면) 零: 零收入(영수입), 零風險(위험성이 없다) 全: 全反射(전반사), 全自動(전자동) 軟: 軟飲料(무알콜 음료수), 軟着陸(경제 연착륙) 亞: 亞熱帶(아열대), 亞健康(병은 없지만 몸이 좋지 않은 상태)

목록에서 중국어 접두사는 예전부터 전해온 고유 접두사와 최근에 여러 요인 작용으로 새로 생긴 준접두사로 양분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어의 접두사는 이러한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준접두사는 이제 접두사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접두사의 특성을 고찰하는 이 연구에서는 고유 접두사뿐만 아니라 준접두사의 특성도 같이 밝혀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두 언어의 접두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접두사 목록도 제시해보았다. 앞선 작업을 토대로 형태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의 특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고 그 특성에 비추어볼 때 중국어 접두사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한·중 두 언어에서 상대적으로 달리 부각되는 어떤 유형론적 특성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www.kci.go.kr

17) '初'는 접두사로 사용하는 경우 보통 '一'에서 '十'까지의 숫자 앞에 붙어 음력 한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의 날짜를 표시한다.

4. 한·중 한자어 접두사의 특성¹⁸⁾

4.1 형태적 측면

4.1.1 어기의 구성

기존 논의와 사전에 실려 있는 접두사의 예를 관찰하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두 언어 어기의 구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어 고유 접두사는 주로 1음절 어기와 결합하여 2음절 파생어를 형성하는 것이 다수인데 중국어 준접두사와 한국어의 한자어 접두사는 단어 단위와 결합하여 3음절 파생어를 대량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현상이 많이 관찰된다. 다음에 몇 개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ㄱ. 생굴, 생감, 왕밤
 ㄴ. 친형제, 시부모, 양과자, 외숙모
- (2) 阿姐(언니), 阿姨(이모), 老外(외국인), 第一(제일)
- (3) ㄱ. 半自動(반자동), 半成品(반제품), 半文盲(반문맹)
 ㄴ. 半清醒狀態(잠이 덜 깬 상태)
- (4) ㄱ. 零利息(제로금리), 零貯蓄(제로 저축), 零收入(수입이 없음)
 ㄴ. 零風險(위험성이 없음), 零煩惱(아무 걱정이 없음),
 零污染(오염이 없음), 零摩擦(마찰이 없음)
 ㄷ. 零不滿意項(불만족 사건이 없음), 零安全事故(안전사고가 없음),
 零重大事故率(대형사고를 제로), 零能見度(가시거리 제로)

18) 기존 연구는 대체로 한국어에만 있는 접두사, 중국어에만 있는 접두사 그리고 한·중 두 언어에 모두 존재하는 접두사 즉 접두사의 형태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한·중 한자어 접두사가 동형이나 이형이냐의 문제에서 벗어나 총괄적인 시각에서 한·중 한자어 접두사가 가지는 일반적이면서도 상대 언어와 달리 나타나는 특성을 밝혀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접두사 예문(1ㄱ)은 접두사가 1음절 어기와 결합하여 2음절 파생어를 형성하는 것이고 (1ㄴ)은 모두 단어와 결합한다. (2)는 중국어 고유어 접두사가 1음절 어기와 결합하여 2음절 파생어를 형성한 예들이다. (3ㄱ), (4ㄱ, 4ㄴ)과 같이 단어 단위로 결합함으로써 3음절 파생어를 형성한다. 예문 (4ㄱ)에서 제시한 예들은 영어 등 외래어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으로 이것은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휘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 외에 (3ㄴ), (4ㄴ)과 같은 경우는 단어를 벗어나서 구 구성과도 자유롭게 결합한 예들이다. 중국어에서 고유 접두사는 구와 결합할 수 없으나 준접두사는 그 뒤에 오는 단위가 단어도 되고 구도 되고 그보다 더 큰 언어단위도 가능하다. 뒤의 성분과 결합함으로써 뒤의 성분을 어휘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¹⁹⁾ 이런 점에서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구별된다.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는 어떤 접두사적 요소가 구 구성을 수식한다면 관형사로 판정하기 때문이다(김창섭, 1999: 24). 즉 뒤의 성분이 형태론적 구성의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앞 성분은 더 이상 접두사가 아닌 관형사로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어 접두사 특히 준접두사는 결합하는 어기의 구성이 비교적 다양하고 단어뿐만 아니라 구 구성도 결합이 가능하다.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는 구 구성과 결합하면 더 이상 접두사가 아니고 관형사가 되어 버린다. 이 역시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를 판별하는 수식 범위라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한·중 두 언어의 접두사 목록을 통해 두 언어의 접두사가 결합하는 구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어 접두사는 거의 다 1음절 어기나 2음절 단어와 결합하여 새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으나 구 구성과 결합하는 데 제약이 있다. 반면 중국어 고유 접두사는 주로 1음절 어기와 결합

19) 呂叔湘, 《漢語語法分析問題》에서는 접두사 뒤에 오는 단위가 구나 구 이상이면 그 접두사를 접두어(語綴)라고 부른다. 呂叔湘(1979: 48-49) 그러나 접두사가 그 뒤에 오는 언어 단위의 크기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결합단위를 하나의 단어로 만들 것이라고 한다. 嚴成庚(1996) <論現代漢語詞綴及其與助辭的區別> 재인용.

하여 2음절 파생어, 준접두사는 2음절 단어와 결합하여 3음절 파생어를 대량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준접두사는 단어뿐만 아니라 단어 이상의 구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양상도 종종 볼 수 있다. 즉 중국어의 고유 접두사는 구 구성과 결합을 안 하지만 준접두사는 구 구성과의 결합이 허용된다.

4.1.2 어기의 문법적 범주

한국어 접두사와 중국어의 접두사(주로 준접두사)는 여기에 붙어 일정한 의미적 역할²⁰⁾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표현의 범주 결정에 있어 하는 역할이 다르다. 이는 특히 한자어 접두사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어기의 문법적 범주²¹⁾와 연관해서 접두사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5) 생굴, 왕만두, 친형제, 시부모, 양과자, 외숙모

위의 예문을 통해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인 ‘생, 왕, 친, 시, 양, 외’가 명사 어기 앞에 붙어 접두 파생어를 형성한다. 형성된 접두 파생어의 범주가 원래 어기의 범주와 일치하다. 한국어의 경우 어기의 범주 변화에 있어서 한자어든 고유어든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²²⁾

(6) ㄱ. 阿姐(언니), 阿姨(이모),

20)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절에서 진행할 것이다.

21) 여기서 말한 범주는 단어 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 품사상에 보이는 형태·통사 범주를 가리킨다.

22) 조현숙(1989)에서 ‘무(無), 불(不), 미(未), 비(非)’ 등 한자어가 고유어 접두사와는 달리 어기의 형태·통사적 기능을 바꿀 수 있다고 하였고 노명희(2005)에서도 한자어의 경우 어기의 범주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접두한자어의 예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말한 다수의 예는 부정을 나타내는 ‘무(無), 불(不), 미(未)’ 등과 서술성을 지니는 ‘대(對), ‘탈(脫), ‘주(駐), ‘재(在)’ 등을 가리킨다. 이런 한자어 형태소가 어근보다는 접두사에 가까운 특성을 지닌 것이 사실이지만 확실한 한자어 접두사로 인정하지 못하므로 본고에서 한자어 접두사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구대상에서도 제외한다.

- ㄴ. 老板(사장), 老外(외국인)
- ㄷ. 第一(제일), 第二(제이)
- ㄹ. 初一(음력 초하루), 初二(초 이튿날)

(7) 超(초)

- ㄱ. 超聲波(초음파), 超音速(초음속)
- ㄴ. 超豪華(초호화), 超大型(초대형)
- ㄷ. 超支(지출이 초과하다), 超標(기준을 초과하다)

(6)은 중국어 고유 접두사의 예문이다. (6ㄱ, ㄴ)은 접두사 '阿', '老'가 명사 어기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고 형성된 파생어의 품사는 그대로 명사이다. (6ㄷ, ㄹ)은 똑같이 수사 어기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중에 (6ㄷ)은 접두사 '第'는 수사를 결합해 서수사가 만들어지고 (6ㄹ)은 접두사 '初'는 수사와 결합해 날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든다. 따라서 중국어 고유 접두사 '阿, 老, 第'는 어기의 통사적 범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지만 '初'는 수사 어기와 결합함으로써 명사성 접두 파생어를 형성한다. 즉 '初'라는 접두사가 어기의 범주를 바꾼다고 할 수 있겠다.

(7)은 중국어 준접두사에 해당하는 예로 동일한 접두사인데도 불구하고 (7ㄱ)과 (7ㄴ)은 어기의 범주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7ㄷ)은 어기는 원래 명사인데 접두사를 붙음으로써 전체 파생어가 동사로 바뀐다. 즉 '超'라는 준접두사는 어기의 범주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²³⁾ 뿐만 아니라 같은 접두사 '超'는 뒤의 단위와 결합하여 접두 파생어 전체를 (7ㄱ) 명사, (7ㄴ)형용사, (7ㄷ) 동사 등 여러 품사로 전환시키는 특성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超' 이외에 '多', '軟' 등 중국어 준접두사도 같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8) 零(영)

- ㄱ. 零距離(거리가 없음), 零機會(아무 기회가 없음)
- ㄴ. 零污染(오염되지 않음), 零摩擦(마찰이 없음)

23) '超'뿐만 아니라 '多', '高' 등 준접두사도 이에 해당한다.

(8)은 준접두사 ‘霽’에 관한 파생어의 예이다. ‘霽’이라는 준접두사는 뒤의 어기는 (8ㄱ)과 같은 명사든, (8ㄴ)과 같은 동사든 최종적으로 형성된 접두 파생어는 모두 명사인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 중국어에서 ‘全(전), 半(반), 大(대), 非(비), 后(후), 軟(연), 亞(아)’ 등 준접두사도 뒤의 어기의 품사와 상관없이 전체 접두 파생어의 품사를 모두 명사로 바꿔준다는 특성을 가진다.²⁴⁾

정리를 하자면 한국어 한자어의 경우 원래 어기의 범주와 다른 범주를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접두사는 전체 표현의 범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중국어 고유 접두사와 준접두사는 어기의 범주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인다. 특히 동일한 준접두사는 접두 파생어 전체를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여러 품사로 바꾸는 재미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외에 준접두사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霽’을 비롯한 준접두사들은 뒤의 어기의 품사와 상관없이 전체 접두 파생어의 품사를 한 가지 품사로, 즉 명사로 바꿔준다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4.2 의미적 측면

한자어 접두사의 특성의 하나로 의미와 관련된 특성을 들 수 있는데, 한자어근에 비해 한자어 접두사는 의미의 변화 과정을 거쳐 왔다. 의미적 측면은 주로 두 언어 접두사 의미의 변화, 즉 어근으로부터 접두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 중에서 신조어를 많이 생성하는 ‘생’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다.

(9) 생(生)

① 어근:

생명: 삶

생명, 생계, 공생, 탄생

24) 이러한 준접두사는 전체 중국어 준접두사의 76.19%를 차지한다(林君峰, 2005: 21).

② 접두사:

- ㄱ. 직접 낳았음. 생부모, 생어머니
 ㄴ. 익지 않거나 마르지 않음. 생대추, 생나무
 ㄷ. 날것이거나 가공하지 않음. 생가죽, 생소금
 ㄹ. 살아서 당하는 불행. 생이별, 생고생
 ㅁ. 녹화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방송하거나 중계함.
 생방송, 생중계
 ㅂ. '억지스러운' 또는 '공연한' 따위의 뜻.
 생트집, 생걱정

(10) 왕(王)

① 어근:

- 임금 왕비, 왕궁, 제왕

② 접두사:

- ㄱ. 크다. 왕개미, 왕거미, 왕밤, 왕콩
 ㄴ. 아주 심하다. 왕세일, 왕고집, 왕짜증, 왕초보

위의 예문을 통해 '생'과 '왕'은 어근으로부터 접두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위의 예문을 통해 접두사 '생'은 의미가 더욱 구체적으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근으로서 접두사로 발전하게 되면 접두사의 의미도 추상적인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생'의 경우, 어근으로서 사용될 때 '생명이나 삶'이라는 뜻이다. 어근 앞에 붙어 접두사로 되면 그 의미가 (9ㄱ)부터 (9ㄷ)까지 그 본래 의미를 어느 정도 잃어가며 의미가 추상화되면서 세분화된다. '왕'은 어근으로 '임금, 군주'라는 뜻인데 접두사 '왕'은 (10ㄱ)에서 보이듯이 대부분은 고유어 어근 특히 동물이나 식물을 의미하는 어근과 결합하여 '크다'라는 의미를 덧붙이면서 얼마든지 새로운 단어와 결합하여 쓸 수 있어서 높은 생산성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10ㄴ)처럼 '아주 심하다'의 의미를 지녀 신조어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

앞에서 제시한 예문에서 보듯이 '생'과 '왕'은 신조어를 많이 만드는 접두사이다. 이어서 중국어에서 똑같이 신조어를 많이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준접두사의 예를 통해 대조해 보겠다. 중국어에서 순수한 단어 구성 접두사는 많지 않은 반면에 준접두사는 풍부한 양상을 보이고 그 수도 많다. 다음에 대

표적인 ‘대(大)’, ‘고(高)’, ‘연(軟)’을 예로 들어 살펴본다.

(11) 대(大)

① 어근:

크다. 大路(큰 길), 大超市(대형마트)

② 접두사:

- ㄱ. 광범위적. 大體育(광범위적 체육운동), 大農業(대농업)
- ㄴ. 현대적. 大經濟(현대적 경제), 大科技(현대 과학기술)
- ㄷ. 종합적. 大商業(종합 상업), 大旅行(다양화 여행)
- ㄹ. 거시적. 大氣候(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大環境(전체적인 사회 환경과 사회분위기)

(12) 고(高)

① 어근:

높다 高山(높은 산), 高樓(높은 빌딩)

② 접두사:

- ㄱ. 高競爭 (경쟁이 치열하다)
- ㄴ. 高汚染 (오염이 심하다)
- ㄷ. 高蛋白質 (단백질 함량이 많다)
- ㄹ. 高風險 (위험성이 크다)
- ㅁ. 高速度 (속도가 빠르다)

예문 (11), (12)에서 준접두사의 의미는 역시 어근과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 어근 형태소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大’는 형용사로서 ‘크다’라는 뜻을 가진다. ‘高’ 또한 형용사로서 ‘높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어근으로서의 의미가 확실하고 명확하다. 이에 비해(11ㄱ)부터 (11ㄹ)까지, (12ㄱ)부터 (12ㅁ)까지는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고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 새로운 어휘를 형성한다. 여기서 준접두사 ‘대(大)’, ‘고(高)’ 같은 경우는 의미가 추상화되지만 그 추상화의 정도가 높지 않아서 어근의 의미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3) 연(軟)

① 어근:

부드럽다. 軟面包 (부드러운 빵), 軟點心(부드러운 과자)

② 접두사:

- ㄱ. 軟目標 (상대방의 군사 시설 이외의 모든 비군사적 목표)
- ㄴ. 軟着陸 (경제 연착륙)
- ㄷ. 軟資源 (실제적 자원이 아닌 과학, 기술, 정보와 관련된 자원)
- ㄹ. 軟飲料 (무알콜 음료수)
- ㅁ. 軟武器 (적의 무선 설비 기능을 교란하는) 전자 방해 장비

‘軟’은 원래 형용사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진다. ‘軟目標’, ‘軟着陸’, ‘軟資源’, ‘軟飲料’, ‘軟武器’는 원래의 ‘부드럽다’의 뜻에서 벗어나고 뒤의 성분과 결합해서 형성된 새 어휘는 본래 의미에서 虛辭化되어 의미 자체가 추상화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예로 든 ‘대(大)’, ‘고(高)’ 보다는 의미의 추상화 정도가 한층 높아져서 다소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軟’의 의미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전체 접두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李蓓, 2004: 12).

이렇게 중국어 준접두사는 앞에 제시한 한국어 접두사와 같이 의미가 추상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별 준접두사는 의미의 추상화 정도에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추상화 정도가 비교적 낮으면 의미 파악은 쉽지만 추상화 정도가 높은데다가 의미가 세분화되지 못하면 구체적인 어기와 결합한 전체 접두 파생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 즉 접두사의 세분적인 의미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접두사의 의미를 바탕으로 전체 접두 파생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다음에서 중국어 고유 접두사의 의미 변화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하겠다.

(14) 노(老)

① 어근:

늙다. 老人, 老年 (노인, 노년)

② 접두사:

- ㄱ.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새로운 명사를 형성함.
老婆, 老公(여보, 당신)
- ㄴ. 일부 동물 명사 앞에 붙어 낮추어 부르거나 무섭다는 뜻.
老虎(호랑이), 老鼠(쥐), 老鷹(독수리)
- ㄷ. 2에서 10까지의 숫자 앞에 붙어 형제의 서열 순서를 나타낸다.
老二(형제나 자매의 둘째), 老三(셋째)

예문(14)에 쓰인 것은 중국어에서 가장 전형적인 고유 접두사이다. 어근으로서의 ‘老’는 예문 (14㉠)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늙은, 나이가 많은’의 뜻이다. 접두사인 ‘老’는 (14ㄱ)에서 ‘老婆, 老公’의 ‘老’는 어휘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주로 부부 사이에 ‘호칭’으로 쓴다. (14ㄴ)에서의 ‘老’는 일부 동물 명사 앞에 붙어 낮추어 부르거나 무섭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14ㄷ)에서는 ‘老’는 숫자 2에서 10까지의 숫자 앞에서 붙어 형제의 서열 순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어근으로서의 ‘老’와 접두사로서의 ‘老’는 의미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형적인 접두사로 인정받는 ‘노(老)’는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날 뿐더러 무엇보다 분화되는 어휘의 의미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나머지 고유 접두사인 ‘阿’, ‘第’, ‘初’도 ‘老’처럼 접두사로 사용할 때 어근의 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문법적인 기능이 강화된다. 그러나 의미에 있어 ‘老’보다 단순하다.

이상을 정리하면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나 중국어의 접두사 모두 기원적으로 볼 때 다 독립적으로 쓰이는 한자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언어에서 사용하는 한자어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며 한국어의 한자어 접두사가 갖는 의미 역시 원래의 한자어의 의미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점 역시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기준 중인 의미의 유연성 상실이라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 준접두사는 원래 어근으로서의 의미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고유 접두사는 접두사로서의 의미가 원래의 의미

에서 거의 벗어난다. 또한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의미가 추상화되면서 세분화된 반면 중국어 준접두사는 어근이나 다른 성분과 결합되어 의미가 추상화된 경향을 볼 수 있으나 개별 준접두사가 세분화되지 못한 특성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준접두사와 관련된 접두 파생어의 의미가 다소 불투명하여 그 의미의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어에서 전형적인 접두사로 인정받는 ‘노(老)’는 의미가 세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며 분화되는 어휘의 의미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반면에 나머지 네 개의 고유 접두사는 이런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유 접두사인 데도 이런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두 언어 접두사가 보이는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한국어의 접두사 중에서 아직은 고유어화의 과정에 처해 있고 중국어의 준접두사 역시 현재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성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제한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두 언어의 접두사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상대 언어와 달리 나타나는 고유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추출하고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5. 나오기

본고에서는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중국어 접두사를 연구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 여부에 있어서 통일된 입장이나 방향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논자에 따라 내용상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접두사 설정에 있어서 접두사를 설정한 사람들마다 그 설정 기준이 다르고 그 목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접두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접두사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이에

따른 접두사의 목록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 다음에 제시한 목록을 기초로 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접두사의 형태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형태적 측면에 있어서 한국어 같은 경우 어기의 구성에 있어 가장 뚜렷한 차이는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는 구 구성과 결합할 수 없고 중국어 고유 접두사는 구 구조와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지만 준접두사는 구 구성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기의 문법적 범주에 있어 어기 범주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한국어 한자어의 경우 원래 어기의 범주와 다른 범주를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중국어는 어기의 범주를 유지하는 특성도 있으나 범주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적 측면에서 두 언어가 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주로 어근으로서의 의미와 접두사로서의 의미상의 연관성 정도, 그리고 의미의 추상화와 세분화 정도에 있어서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접두사 논의의 다양성은 연구하는 사람에게 생각의 여지를 많이 주는가 하면 접두사 연구하는 데 많은 애매함과 모호성도 함께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애매함과 모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생각으로 한·중 한자어 접두사 특성에 대해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이쉽게도 본고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양국의 한자어 접두사가 가지는 형태적, 의미적 특성을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살펴보았고 한·중 한자어 접두사의 특성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가치 있는 연구리라 생각한다.

< 參考文獻 >

- 김규철(1980), <한자어 단어형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41집, 1-99.
 김규철(1997), <한자어 단어 형성에 대하여>, 《국어학》 29-1, 261-308.
 김인균(2002), <국어의 한자어 접두사 연구>, 《어문논집》 30집, 85-108.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서울: 태학사.
 김창섭(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연구보

고서(국립국어연구원 1999-1-5), 1-36.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95, 1-70.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서울: 태학사.

방향옥(2010),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파생어 대조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정미(1994), <현대 한국어 접두 파생어>,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병국(1975), <현대국어의 어구성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성환갑(1972), <접두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기중(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송철의(2001),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파생접사 연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신창순(1969), <한자어 소고>, 《한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42-43집, 249-267.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집, 25-39.

신 평(2009), <한중 한자어 파생법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소진(2004),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익섭(1968), <한자어의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475-483.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집, 155-165.

정민영(1994), <국어 한자어의 단어 형성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원수(1991), <국어의 단어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현숙(1989), <부정접두어 '無, 不, 未, 非'의 성격과 용법>, 《관악어문연구》 14, 231-252.

주교량(2011),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중국어 접두사의 비교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곤(1999), <현대 국어 한자어 파생법 연구-사전에 등재된 한자어 접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현배(1955/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한림(2006), <한국어와 중국어의 한자어 접사 비교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경란(1996), <한자어 접두파생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陳光磊(1994), 《漢語詞法論》, 學林出版社.

郭良夫(1983), <現代漢語的前綴和後綴>, 《中國語文》 第4期.

李 蓓(2004), <現代漢語新興類詞綴研究>, 遼寧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李婷婷(2003), <論現代漢語裏的詞綴>,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李菡幽(2001), <現代漢語詞綴研究>,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林君峰(2005), <現代漢語派生構詞研究>,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劉月華·潘文娛 等(2001),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 陸志韋(1990), 《漢語的構詞法》, 北京 中華書局.
- 呂叔湘(1979), 《漢語語法分析問題》, 商務印書館.
- 呂叔湘(1982), 《中國文法要略》, 商務印書館.
- 馬慶株(1998), <現代漢語詞綴的性質範圍和分類>, 《中國語言學報》第6期.
- 朴愛陽(2002), <現代漢語派生構詞研究>, 南開大學 博士學位論文.
- 邵敬敏(2001), 《現代漢語通論》, 上海教育出版社.
- 沈孟璽(1986), <漢語新的詞綴化傾向>, 《南京師範大學學報》第4期.
- 沈孟璽(1995), 《再談漢語新的詞綴化傾向》, 《詞彙學新研究—首屆全國現代漢語詞彙術
討論會選集》, 北京: 語文出版社.
- 宋開峰(2009), <現代漢語詞綴、類詞綴確定問題的一些思考>,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
文.
- 鄒遠春(2006), <現代漢語構詞法中的詞綴化傾向研究>,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 王 力(1985), 《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 王玲芳(2001), <現代漢語新興類詞綴(語綴)研究>, 廣西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嚴戎庚(1996), <論現代漢語詞綴及其與助辭的區別>, 《新疆大學學報》第4期.
- 楊錫彭(2003), <關與詞根與詞綴的思考>, 《漢語學習》第2期.
- 尹海良(2007), <現代漢語詞綴研究>,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 趙艷平(2005), <《現代漢語辭典》所收詞綴探析>, 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
- 趙元任(1968), 《漢語口語語法》, 商務印書館.
- 朱德熙(1982),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 朱德熙(1984), 《現代中國語語法論》, 許成道 譯, 서울: 고려인
- 鄒曉玲(2006), <現代漢語新興類詞綴探析>, 華中科技大學 碩士學位論文.

< 中文提要 >

自古以來中韓兩國就有著頻繁的文化交流, 這種交流的影響反應在語言上就是韓語的詞彙體系中有大約壹半以上是由漢字詞構成。儘管如此, 從語言的形態類型來看, 顯然韓語屬於黏著語, 漢語則屬於孤立語。本文從語言類型論的角度, 通過具體實例對作為黏著語的

韓語中的漢字詞前綴和作為孤立語的漢語的前綴(包括典型前綴和類前綴)的特性進行了分析,在此基礎上概括總結出韓漢兩種語言漢字詞前綴的共同點和不同點。為此本文在以往的研究成果的基礎上,重新提出漢字詞前綴的界定標準,並以此標準重新篩選出韓語漢字詞前綴和漢語的典型前綴、類前綴。本文研究的重點在於從形態、意義兩方面分析韓中兩種語言的漢字詞前綴的特性,其中形態方面主要是著眼於詞根的構成和詞根的語法範疇,意義方面則重點考察前綴從詞根到前綴發展過程中的意義變化情形。本文的目的在于將韓漢漢字詞前綴的特性明晰化,所以為減少漢字詞前綴研究的複雜性和多樣性所帶來的困惑,在承認韓語中存在漢字詞前綴的前提下,以韓語中公認的沒有爭議性的漢字詞前綴為基準,以此對照分析出作為孤立語的漢語區別於韓語的特性。

關鍵詞: 漢字詞、前綴、類前綴、形態、意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9. 22.	2012. 11. 5.	2012. 11. 17.	2012. 11. 21.	2012. 11. 30.